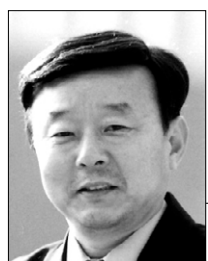


부끄러운, 익명의 추악이 하나 있다. 예비군 훈련을 받던 시절이었다. 예비군복이란 유니폼은 괴력을 발휘한다. 그것을 입고 무리 속에 섞이면 객기와 투정, 오만과 방자가 발휘된다. 현역병 시절의 분노와 억하심정이 장처럼 솟구친다. 그래서 일부러 훈련장 질서를 문고교 교관을 회통한다. 동조하는 동지들이 수두룩하다. 익숙하지 않은 쌍소리로 거침없이 나온다. 어지간히 심술을 부려도 결코 구타할 수 없고 영창도 못 보낸다는 걸 안다. 솟털 보송보송한 조교들만 발을 동동 구른다. 내 속에 그런 악마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만음을 부려대곤 했다. 유니폼 속에, 무리 속에, 익명 속에서 누리는 쾌락이었다.

바야흐로 익명의 창과 송곳이 장쾌하는 시대다. 인터넷이란 무한바다에 표현의 자유란 갑옷을 입은 창기병들이 넘쳐난다. 마구잡이로 던지는 돌에 누가 맞아 머리통이 깨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혹은 목숨을 잃든 알 바 아니다. 심심해서 내지른 창질에 누군가의 가슴팍에 별건 피가 흘러도 알 바 아니다.

작은 송곳으로 콧속 찢어보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가 나타나고 박수치는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오니 신명이 난다. 우쭐해진다. 어흥! 어느 순간 황제가 된 기분이 든다. 선거유세 한번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라 부르는 백성들이 생겼다. 통반장 한번 해본 일이 없는데 단숨에 대통령이라니, 기분 쨌진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인간은 태어나면서 입안에 도끼를 물고 나온다고 했다. 심플한 경교이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도끼의 시대는 이제 그만

다. 인터넷의 바다에는 도끼가 난무한다. 정보의 창고라는 손기능보다 악성 루머, 악성 댓글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인터넷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의견이나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단순한 욕설과 협박으로 일관하는 악플이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0.1%의 누리꾼이 댓글의 30%를 도배했다.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좋을 골방백수들이 악성루머, 악성댓글의 주생산자이다. 어느 악플꾼은 하루 23개 꼴로 75일간 1755개의 악플을 생산했다. 긍정보다는 부정, 포지티브보다는 네가

티브가 더 매혹적이다. 우리 속에 있는 악마는 생명력이 끈질기다. 부정적 글과 댓글에 누리꾼이 더 몰린다. 그것은 어느 순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왜곡된 여론=영향력이란 원리가 작동된다.

이러한 구조와 심리현상은 고쳐지고 치유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결과 질타, 역공격과 문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악마성에 반발심이란 기쁨을 부으면 대형화재가 된다. 무차별 공격, 묻지마 살인도 이런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골방백수와 비뚤어진 심성의 소유자들을 태

양에너지가 풍성한 세상 속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땀 흘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의 품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짧게는 한 달이면 족하다. 망가지면 반사회적 존재가 된다. 친구 P는 잘나가던 증권회사 지점장이었다. 사건이 터져 그는 잠적한 지 한 달만에 노숙자가 되었고 지금은 연락두절이다. 가정이 해체된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로 되어있던 ‘미네르바’는 결국 구속되었다. 바라건데, 공장 몇 대 세계 치고 각서 받고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의 재능을 사회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유능한 해커들이 해킹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역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묵묵하고 은은하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거져먹 가뭄이 흠이 버리면 서/ 자기 허물은 투전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법구경>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종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법구경>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나’라는 집착 내려놓는 마음공부하세요”

한 처사님이 보내주신 새해에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답은 마음공부였습니다.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라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곁에 두고자 애쓰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9 행복해지는 방법

늘은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데서 오며, 죽을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이름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된다

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 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 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수행자의 길없는 삶이다.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리고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새해에는 주위 사람들과 사랑하고 배려하며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다음 벌어들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나라는 집착을 놓으면 한마음이니 화복과 공덕이 저절로 찾아온다.” 나무 자성본래불.

황수경(통독대 선학과 강사)

본 란 100회를 함께 회향하시는 소감을 환영합니다. seon@hope.korea.com(황수경), 서울 마포우체국사서함 111호 (우121-04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진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 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타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뻠잡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1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년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백만 되면 귀찮은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긴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1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뽕잡지 않고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람에게 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년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백만 되면 귀찮은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타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이가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뺄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 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의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후속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해보는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타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